물류공항철도과	스마트 물류 기반 조성 및 도민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
성 과 요 약	○ '국가 용역(스마트 물류혁신특구) 실현 시범사업 유치' 토대 마련 ○ '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구상 국비 확보' 로 글로벌 항만 기반 구축 ○ 「신항만 활성화 조례」 제정, 신항만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 ○ 김해공항 화물 수출 재개, 사천공항 제주 노선(대한항공) 취항 ○ 경남도 최초 경전선 '수서행 고속열차 운행' 개시로 도민 숙원 해결

□ 추진개요

- 트라이포트 인프라 건설에 따른 물류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
- O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연계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 항만물류 기반 마련
- O 항공 여객·물류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개발 여건 마련
- O 지역거점 연결 철도망 확충, SRT 운행 개시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

□ 추진실적

- O 지역 의견수렴을 통한 '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' 방향 제시
- 국토부에서 최초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 연구용역에 관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'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'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국가 용역의 추진 방향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제안
- 국토부 및 용역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 구상(안) 제시 「물류산업특별법」제정, 물류혁신특구 조성, 전담기구 설립, 각종 규제 개선 등 건의
-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업 및 관계기관 협의
- 물류 전문가 특강 3회, 국토부 12회, 부산세관 3회,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회, 부산·창원·김해시 15회, 한국교통연구원 8회, 경남연구원 5회, 물류기업 간담회 3회 업무협의
- 진해신항 조기 착공을 위한 조속한 사전 행정절차(총사업비 협의 사업발주 등) 이행 및 사업비(국비) 확보
 - 남방파제 1.4km, 3,107억원 /남측방파호안 1.8km, 6,975억원 /준설토투기장(3구역)호안 5.9km, 8,392억원
 - •세계 주요 경쟁항만의 스마트 대형항만 전환 추세 대응, 진해신항 조기 건설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스마트 물류 중심 역할과 지역균형 발전 기여
 - 진해신항(1단계) 조기 착공을 위해 기재부 방문, 조속한 총사업비 협의 추진
 - 해수부, 국회 등 방문 협의하여 '24년 착공을 위한 국비 반영(5,047억원)
- '신항만비즈니스센터'건립 기본구상 용역(국비 3억원) '24. 정부예산 반영
 - •기간 '24.~'28./총사업비 약 1,000억 원 /위치 진해구 웅동배후단지 내 /규모 지상19층/지하3층
 - 항만·해운·물류 전문서비스 기능 집적화로 글로벌 항만 지원과 비즈니스 공간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
 - 국회·관계기관(행정기관, 기업, 협회 등) 토론회(3회) 및 대정부 건의(4회)
 - * 국회 공동토론회('23.2.), 항만관련 협회 포럼('23.5.), 도의회 공동토론회('23.9.) 등
 - 비즈니스 센터 건립 필요성 도민 인식조사 실시(응답자의 83% 건립 필요 의견)
 - 공공기관, 기업 대상 입주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

- 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물류산업 지원 체계 강화 ('23.8.~)
 - 「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」 제정('23.8.)으로 신항만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
 - •도 신항만발전협의회 구성·협의회 개최('23.11.)로 신항만 비전과 발전방안 논의
 - 부산항의 경남지역 항만 확대 및 항만위원회의 합리적·균형적 운영을 위한 건의 (관계부처 요구, 부산항만공사 정관 및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/'23.7.~)
 -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**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**, 경남·부산 **항만위원 동수 추천** 추진 (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)
- '20년 수출 중단 후 3년 2개월 만에 김해공항 항공화물 수출 재개('23.7.1.~)
 - '20.4. 수출 중단 후 **3년 2개월 만에 김해공항 항공화물 수출 재개** 및 화물전용기 취항 준비(에어인천)
 - 김해공항 항공물류 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으로 항공수출 조기 재개 논리 발굴
 - 국토부, 국회,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협의체 구성, 대한항공 경영진 면담,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한 관계기관 지속 설득
 - 노선 확대, 대형기 취항, 항공화물 확보 등 도내 및 인근 지자체 협의
- '20년 운항 중단 후 3년 5개월 만에 사천공항 제주 노선 취항('23.10.~)
 - '20.5. 운항 중단 후 **3년 5개월 만에 복항**, 주3회(대한항공/수·금·일 왕복 1회) 운항
 - 사천↔제주노선 이용 수요 발생, 기존 **사천↔제주노선 운항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**
 -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, 항공사 협의, 국토교통부 건의, 대한항공 사장 면담 등 추진
-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('23.11.)
 - 가덕도신공항의 해상공항 특수성을 고려한 타 공항(인천공항, 대구경북신공항 등)과 차별화된 법안 통과 논리 발굴로 신공항 주변 시군 개발 근거 마련
 - 개발주변 시·군 협력을 통한 국회, 국토교통부 지속 건의 성과
- 남부내륙철도 1~9공구 기본설계 추진 및 10공구 기본설계 발주
 - 기간 '19.~'30. / 사업량 L=177.9km / 사업비 : 6조 8,664억원
 - 남부내륙철도 전 공구 설계 착수를 통해 서부경남 접근성 확대 및 남해안권 관광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선도
 - 10공구 턴키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, 국가철도공단과 입찰방법 전환(턴키→기타공사), 설계기간 단축 등 지속 협의(5회)
- 경남도 최초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개시 ('23.9.1.~)
 - •국회, 중앙부처 등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경남도 최초 수서행 열차 도입(1일 4회)
 -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운행 지속 건의('17~), 지역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추진(경상남도의회, 경남경영자총협회, 창원상공회의소, 진주상공회의소 등)

□ 주요 성과(결과)

- 국토부 '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' 방향 제시('23.7.~)
- → 국가 용역 결과에 도 요구사항(법 제정, 특구 조성, 전담기구 설립, 규제 완화 등) 반영,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·김해시 등을 아우르는 국가 스마트 물류 혁신특구 시범사업 유치 기반 마련을 통한 아시아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
- 진해신항(1단계) 기반시설 사업발주 및 '24년 착공 대비 정부예산(5,047억원) 반영
- → 도내 발주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 물류 허브 중심지 도약
- 신항만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센터 건립 국가 기본구상 용역 반영
- → 글로벌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거점 항만의 역량을 제고 할 행정·물류·금융 등 국제 물류비즈니스 원스톱 항만서비스 지원 센터 마련
- O 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과 항만물류산업 지원 체계 강화('23.8.)
- → 항만·배후단지의 경남지역 비중 증대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경남도 주도적인 역할 수행 및 항만공사와의 협력 강화 • 신항만 개발·운영에 대한 지역의 권한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발전
- O 김해공항 항공화물 수출 재개('23.7.1.~)
 - → '23. 7. 1.부터 여객기를 활용한 벨리카고(항공기 하부 화물칸) 수송 시작, 일 평균 300여톤(연간 약11만톤)의 화물처리 가능
 - 부산·경남 지역의 산단 수출입 물류비용 대폭 절감 등 수출 경쟁력 제고, 신선화물(딸기, 파프리카 등) 유통시간 단축에 따른 품질 향상
- 사천공항 제주 노선 취항('23.10.~)
- → 대한항공 운행 중단 후 3년 5개월 만인 '23. 10월 부터 대한항공 사천-제주 노선 주3회(수·금·일/왕복1회) 운항하여 사천공항 활성화 및 서부경남 도민의 교통접근 편의성 개선
- O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('23.11.)
 - →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반경 10km 이상 지역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창원, 거제시도 기반시설 설치, 개량사업, 도시개발·정비·재생 등 지원 가능
- 경남도 최초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개시('23.9.1.~)
- → 도민의 서울 강남, 경기 동남부 주요 도시 접근성 향상(40분 단축) 및 이동 편의 (10월 기준, 도내 이용률 83%, 주말 이용객 일평균 1,523명, 이용률 93%)
- O 남부내륙철도 1~9공구 기본설계 추진 및 10공구 기본설계 발주
- → 서부경남 접근성 확대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